

#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Japanese Edition in Taiwan

曹 炯 鎮 (Cho, Hyung-Jin)\*

##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br>印出技術 |
| 2.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印本の<br>概要 | 6.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br>印刷技術 |
| 3.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br>製作技術 | 7. 結 論                   |
| 4.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br>組版技術 | <참고문헌>                   |

## < 초 록 >

- (1) 臺灣 소장 일본 고활자본은 19종이다. 그중 3종은 孤本이다.
- (2) 活字의 재질은 모두 목재이다. 製作技術 수준은 모두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다. 문자의 미감은 세련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혼재하고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가지런한 편인데, 빼놓아진 문자와 농담의 차이는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 (4) 印出技術은 묵색 농담의 차이가 다소 보이고, 墨汁의 번짐과 이중 인출 등이 약간 보일 만큼 다양하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 (5) 印刷技術 수준은 중상급에 해당한다.

要語: 臺灣 소장, 일본 고활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출기술, 인쇄기술

\*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3년 12월 2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 (1) There are nineteen editions of Japanese early type collected in Taiwan. Three of them are the only editions.
-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in all editions imitates script writing style. The character touch is a mixture of both sophisticated and crude touches. Its technical level is middle-upper grade.
-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There is a wide variance in the skewed characters and thickness of ink color. Its technical level is middle-upper grade.
- (4) The brushing technique shows some inconsistency of ink color thickness and varies significantly with a few incidences of chinese ink spreads and double printing. Its technical level is middle-middle grade.
- (5) The typography level is middle-upper grade.

Key words: Taiwan collection, Japanese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 1. 緒論

일본의 서지학계는 자국의 활자인쇄발달사 상에 나타난 활자본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古活字本으로 1590년(天正 18)부터 1651년(慶安 4)까지의 62년간에 활자로 인쇄한 판본을 지칭한다. 둘째는 準古活字本으로 1652년(承應 元年)부터 1735년(享保 20)까지의 84년간에 활자로 인쇄한 판본을 지칭한다. 셋째는 近世活字本으로 準古活字本 이후 서양에서 근대의 연활자가 수입되던 개화기 이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활자로 인쇄한 판본을 지칭한다.

고활자본은 1590년부터 1613년 사이에 서양의 선교사에 의하여 수입된 서양의 활자로 인쇄한 판본과 1593년부터 조선에서 가져간 활자의 영향으로 조성된 활자로 인쇄한 판본으로 구분된다. 전자를 크리스찬판이라 통칭함에 비하여, 후자는 인쇄의 주체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의 고활자본은 일본 이외에 한국이나 중국 본토에는 거의 소장되어 있지 않음에 비하여, 중화민국 타이완 지역에는 적지 않은 수량이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고활자에 대한 인쇄기술을 완전하게 분석하기 위하여는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타이완 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의 고활자본 중에는 일본에서 찾을 수 없는 판본도 있어서<sup>1)</sup> 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일본 고활자본의 소장처와 판본을 망라하여 검색한 후, 각각의 소장처를 직접 방문하여 직관법으로 판본을 일일이 조사 분석하여 종합하였다. 판본을 실사한 결과 파악된 판중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 문헌도 참고하였다.

그러나 문헌을 통하여 일본의 고활자본으로 검색되었지만, 실사 결과 해당 판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 것은 판본 정리자의 오류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하였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3종이 있다(<표 2>). 이중 「周易」은 아직 書陵部·尊經閣의 소장본과 대조를 못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제외 판본 목록

서명	권-책수	소장처, 청구기호	판본사항	분석결과
新刊補注銅人 脛穴鍼灸圖經	5-5	故宮, 故觀004214-4218	朝鮮舊活字翻元崇化余 志安勤有書堂本 <sup>2)</sup>	朝鮮甲辰字印本

소장처: 故宮 = 國立故宮博物院圖書文獻館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타이완 소장 일본 고헤자본의 개요와 이들 판본의 활자 제작기술 · 조판기술 · 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 등을 포함하였다. 개요는 타이완 소장 현황과 간행 수단을 살피고, 판식은 일본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판본만 분석하였다. 기타 간행 지역 · 간행 주체 · 간행 시기 · 판식 등은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각 판본별 연구에서 서술하기 위하여 생략하였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sup>3)</sup>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인쇄 주체가 다양한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 2.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印本の 概要

### 2.1 日本 古活字印本の 所藏 現況

문헌적 방법을 통하여 검색한 결과, 고헤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수량은 2처 19종인데, 이중 4종은 중복 소장 또는 복본을 소장하고 있다. 이를 예시하면 <표 2>와 같다. 준고활자본은 없다. 國立故宮博物院 圖書文獻館은 善本の Data Base(「國立故宮博物院善本古籍資料庫」)를 구축하면서 판본사항을 책자 목록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정하였다.

2) 「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舊活字翻印元崇化余氏勤有堂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표 2>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印本 目錄

서명	권-책수	소장처, 청구기호	판본사항	분석결과
孔子家語	10-5	故宮, 故觀5423-5427	日本舊活字本	元和年間(1615-23)上官國林宅木活字印本
群書治要 <sup>4)</sup>	50-22	故宮, 平圖6500-6521	日本銅活字印本	弘化3年(1846)紀伊蕃以駿河版銅活字印本
唐才子傳	10-1	故宮, 故觀3081	日本慶長活字本	慶長年間木活字印本
毛詩	20-5	國圖, 233	日本舊活字本	[慶長年間]木活字第2種 1種印本
		故宮, 故觀13014-13018	日本慶長年間活字本 <sup>5)</sup>	
白氏文集 <sup>6)</sup>	71-50	國圖, 9847	日本元和4年(1618)那波道元活字本	元和4年(1618)那波道元木活字印本
	71-30	國圖, 9848		
翻譯名義集	7-7	國圖, 8983	日本舊活字本	[慶長元和年間]木活字印本
本朝文粹	14-15	故宮, 故觀9914-9928	日本寬永7年(1630)活字本	寬永6年(1629)田中長左衛門木活字印本
史記	130-50	國圖, 1317	日本舊活字本	慶長年間木活字第1種印本
		國圖, 1318		
		故宮, 故觀956-1005		
新雕皇朝類苑	78-16	國圖, 7559	日本元和7年(1621)銅活字本	元和7年(1621)後水尾天皇勅版木活字印本
禮記	20-10	故宮, 故觀13057-13066	日本慶長年間活字本 <sup>7)</sup>	[慶長元和年間]木活字印本
	20-6	故宮, 故觀13019-13024	日本慶長年間活字本 <sup>8)</sup>	

4) 「群書治要」는 弘化 3年(1846)에 인출하여 근세활자본에 해당되나, 元和 2年(1616)의 駿河版 銅活字로 인출하였으므로 고향자본으로 간주하였다. 인쇄기술은 차후 駿河版 고향자의 인쇄기술 연구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5) 「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足利活字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6) “白氏長慶集”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권두제는 “白氏文集”이다.

7) 「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足利五經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8) 「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足利活字五經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서명	권-책수	소장처, 청구기호	판본사항	분석결과
五百家註音辨 昌黎文集	40 <sup>9)</sup> -8	國圖, 9710	日本舊活字本	[元和寬永年間]木活字印本
殘儀兵的	1-1	故宮, 故觀6407	日本慶長年間活字本 <sup>10)</sup>	[慶長年間]木活字印本, 孤本
剪燈新話句解	3-3	國圖, 8537	日本舊活字本 <sup>11)</sup>	[慶長元和年間]木活字印本
剪燈餘話	5-5	國圖, 8538	日本舊活字本	元和寬永年間木活字印本
貞觀政要	10-10	故宮, 故觀2859-2868	日本元和9年(1623)京都忠田吉兵衛活字本 <sup>12)</sup>	元和9年(1623)京都忠田吉兵衛木活字印本
周易	10-3	故宮, 故觀13008-13010	日本慶長活字本 <sup>13)</sup>	慶長年間木活字印本, 孤本
春秋經傳集解	30-15	國圖, 593	日本舊活字本	[慶長年間]木活字印本
皇帝內經素問 註證發微	9, 補遺1- 12	故宮, 故觀3233-3244	日本寬永5年(1628)豬子梅壽活字翻印明萬曆間山陰王氏本 <sup>14)</sup>	寬永5年(1628)梅壽木活字翻印明萬曆年間山陰王氏本, 孤本
後漢書	130-50	故宮, 故觀14446-14495	日本慶長活字本	慶長年間木活字印本

소장처: 故宮 = 國立故宮博物院圖書文獻館, 國圖 = 國家圖書館<sup>15)</sup>

## 2.2 日本 古活字印本の 刊行 手段

駿河版 銅活字로 인출한 『群書治要』를 제외한 모든 판본이 목활자를 이용하였다. 國家圖書館은 『新雕皇朝類苑』(書影 4)을 “銅活字本”으로 저록하고 있으나, 실물 판독 결과 元和7年(1621)後水尾天皇勅版木活字印本임을 확인하였다.

9) 33권만 소장하고 있다.

10) 『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舊活字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11) 『國立中央圖書館善本書目』에는 “日本舊刊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12) 『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元和9年(1623)刊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13) 『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足利活字五經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14) 『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活字翻印明萬曆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15) 현재의 명칭 이전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이라 칭하였다.

## 2.3 日本 古活字印本の 版式 上 特徵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고활자본 3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타는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각 판본별 연구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실사 내용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3.1 表紙 題籤 書名

「周易」은 백색 제침을 갖추고 있는데 인쇄된 사주쌍변의 광곽 안에 서명이 朱書되어 있다. 「殘儀兵的」과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제침이 없다.

### 2.3.2 匡廓 형식

3종 모두 사주쌍변이다.

### 2.3.3 界線 유무

3종 모두 계선이 있다.

### 2.3.4 行數

「殘儀兵的」은 9행, 「周易」은 7행,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10행으로 각각이다.

### 2.3.5 字數

「殘儀兵的」은 16자, 「周易」은 17자,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22자로 각각이다.

### 2.3.6 小註 형식

3종 모두 쌍행 형식이다.

### 2.3.7 版口 형식

모두 흑구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殘儀兵的」은 대흑구인데 관심에 가득찬 형식이고, 「周易」은 소흑구,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대흑구이다.

### 2.3.8 魚尾 형식

「殘儀兵的」은 上下內向黑雙魚尾, 「周易」은 上下下向黑雙魚尾,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上下內向3葉花紋魚尾로 각각이다.

### 2.3.9 기타 특징

3종 모두 관심을 이루는 관구와 어미가 일체식인데, 각각의 특징이 있다. 「殘儀兵的」은 양측의 계선을 포함한 완전일체식이다. 「周易」과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계선을 조립한 부분일체식이다.

관심제는 모두 소자를 사용하고 있다.

「周易」은 기호 활자(괘)를 사용하고 있다.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대소 음각문자와 함께 목판을 병용하고 있다. 天頭에 소자 2자의 注音이 있다. 예: 卷1 제1엽하 5행 “造音糙少去聲”.

### 3.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製作技術

#### 3.1 材質과 製作 方法

#####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모든 판본에서 동일 문자의 자양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양이 매우 유사하고 크기도 균일하여 매우 세련된 수준의 경우가 있다(『孔子家語』·『毛詩』(書影 1)·『白氏文集』(書影 2)·『本朝文粹』·『史記』·『新雕皇朝類苑』).

자양이 다소 또는 제법 차이되면서 다듬어지지 않은 듯 약간 떨어지는 세련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翻譯名義集』(書影 3)·『剪燈新話句解』(書影 6)·『貞觀政要』·『周易』·『春秋經傳集解』(書影 8)·『後漢書』).

자양이 제법 차이되면서 세련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唐才子傳』·『禮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書影 5)·『殘儀兵的』·『剪燈餘話』(書影 7)),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행렬의 가지런한 정도를 보면 활자의 크기는 균일하고 방정함을 짐작할 수 있다(『殘儀兵的』).

##### 3.1.2 刀刻의 痕迹

모든 판본에서 도각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필획의 윤곽은 부드럽지만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本朝文粹』·『新雕皇朝類苑』).

필획의 윤곽에서 날카로운 도각의 흔적이 보이면서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역력한 경우가 있다(『孔子家語』·『白氏文集』·『剪燈餘話』).

필획의 윤곽과 교차하는 곳에서 모두 역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3.1.3 木理의 有無

목리는 모든 판본에서 목즙이 과다하게 도포된 문자가 아니면 크고 작은 현상을 시중 쉽게 볼 수 있다. 신각 활자에 가까울 정도로 목리가 미세하게 보이기도 하고(『毛詩』·『新雕皇朝類苑』·『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餘話』), 반면에 소자에서 큰 목리가 자주 보이기도 한다(『翻譯名義集』·『本朝文粹』·『史記』·『禮記』·『剪燈新話句解』·『春秋經傳集解』·『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목리가 거의 없거나 크고 작은 것이 쉽게 보이기도 하여 오래 사용한 활자와 보각 활자가 섞여 있거나(『史記』), 필획이 굵고 윤곽과 서체가 퇴화되어 목리가 역력한 점에서 많이 사용한 활자임을 알 수 있다. 즉 『唐才子傳』 목록 제4엽하 2-13의 “張”·3-3의 “鄭”·권1 제1엽하 10-22의 “招”·12-10의 “梁” 등은 필획의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크게 벌어져 있다.

목색이 금속 재질처럼 미세한 점으로 이루어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목질이 단단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翻譯名義集』·『史記』·『新雕皇朝類苑』·『春秋經傳集解』).

## 3.2 熟練度

###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모든 판본에서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피면, 필서체의 필의를 살리고 있다. 다만 조각술과 사용에 의한 마모의 정도에 따라서 서체의 미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3.2.2 文字의 美感

서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문자의 크기도 균일하다. 필획이 매우 균정하여

미감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 우수한 범주에 속한다. 다만 세밀한 부분에서 약간씩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붓으로 쓴 듯 독특한 필획의 미감을 잘 표현하여 매우 고명한 경우(『孔子家語』·『白氏文集』), 드물게 크기가 다르거나 필획이 굵거나 가늘어 균정도가 떨어지고 약간의 균형이 어긋난 문자가 있는 경우(『毛詩』·『本朝文粹』·『貞觀政要』), 부드러운 행서체(서문) 또는 해서체(본문)의 세련미를 표현하면서도 간혹 드물게 다듬지 않은 듯한 거친 문자가 있는 경우(『白氏文集』·『新雕皇朝類苑』), 많은 수량의 활자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원된 각자장의 기술 차이가 있는 듯, 한편 조성하면서 한편 인출한 결과 신조 활자와 사용한 활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史記』).

서체는 균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간혹 다소 균형 잡히지 않은 부조화가 섞여 있는 경우(『翻譯名義集』·『禮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新話句解』·『周易』), 필획은 균정한데 도각의 흔적으로 다소 투박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翻譯名義集』·『剪燈新話句解』·『周易』·『春秋經傳集解』), 서체에서 풍기는 각각의 미감을 살리고 있는 경우(『翻譯名義集』·『剪燈新話句解』·『周易』·『春秋經傳集解』), 문자의 크기는 제법 큰 오차를 보이고 필획은 도각 흔적이 다소 거칠고 굵기도 제법 차이 나면서 그다지 균정하지 못하여 세련미가 제법 떨어지는 경우(『禮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後漢書』) 등이 있다.

서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고 있다. 필획은 대체로 균정하지 못하고 약간 거친 모습을 보인다. 자양도 제법 차이 나서 세련미도 떨어지고 서체의 미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剪燈餘話』).

서체 균형의 부조화 요소가 약간씩 포함되어 윤곽과 함께 퇴화된 모습이 보인다. 필획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상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서체의 미감을 논하기 어려울 만큼 떨어지는 수준이다(『唐才子傳』·『殘儀兵的』).

대부분의 문자가 많은 사용으로 마모되어 필획이 굵고 도각 흔적이 무디어져서 미감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자연히 서체 균형도 다소 무너진 상태이다. 간혹 필획이 가는 문자가 혼재하고 있는데, 조각 상태가 다소 거칠고 문자의 크기도

미세하게 큰 경우가 있다(『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 3.3 기타

#### 3.3.1 活字의 크기

『唐才子傳』에 남아있는 잡목의 흔적을 자세히 측정하면 활자 동체의 가로 폭이 11.5mm 정도이다. 『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은 대자의 가로가 16~16.5mm로 보인다.

#### 3.3.2 例外的인 活字

간혹 문자의 크기가 약간 작으면서 필획이 굵고 균정도가 떨어지는 문자가 있거나(『本朝文粹』), 문자의 크기도 다르면서 필획이 가늘거나 조각이 거친 문자와 윤곽이 무더진 문자가 섞여있는 경우가 있다(『史記』·『新雕皇朝類苑』·『禮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新話句解』). 보각한 활자로 보인다.

#### 3.3.3 木板의 竝用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가 유일하다. 이 부분은 활자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평가를 생략한다.

### 3.4 綜合 評價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1종이며, 나머지 7종(『唐才子傳』·『翻譯名義集』·『禮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殘儀兵的』·『剪燈餘話』·『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은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활자 제작의 주체가 각각 다르지만 제작기술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중상급에 속한다.

## 4.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組版技術

###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 4.1.1 從行

모든 판본이 대체로 가지런하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드물게 미세하게 치우쳐 빠뜨려진 경우(「毛詩」·「翻譯名義集」·「新雕皇朝類苑」·「剪燈餘話」·「周易」·「後漢書」 소자), 다소의 치우침으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唐才子傳」), 문자의 크기 차이로 약간의 출입이 있는 경우(「禮記」·「剪燈新話句解」), 다소 굵었거나 치우친 열이 드물게 보이는 경우(「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등이 있다.

#### 4.1.2 橫列

횡렬 역시 모든 판본이 대체로 가지런하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세한 오차가 꾸준히 보이거나(「毛詩」·「周易」), 소자에서 다소의 굴곡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翻譯名義集」·「剪燈新話句解」·「春秋經傳集解」·「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後漢書」).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다소의 굴곡이 보이는데(「唐才子傳」·「剪燈餘話」), 소자는 약간 더 심한 경우가 있다(「新雕皇朝類苑」·「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문자 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지런한 엮도 있으나, 제법 차이 나는 엮도 적지 않은 경우가 있다(「禮記」).

### 4.2 字跡의 安置 角度

빠뜨려진 문자가 거의 없거나, 드물게 보이는 것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간혹 드물게 보이기도 하고(『孔子家語』 후반부·『貞觀政要』), 권마다 1~2자에 불과하거나(『白氏文集』), 엽당 1~2자씩 간혹 보이기도 하고(『史記』·『殘儀兵的』), 소자에서 간혹 눈에 띄는 것이 있다(『剪燈餘話』).

빼뜯어진 문자가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약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대·소자를 합하여 3~6자 정도인데, 대체로 소자에서 비교적 많이 보인다(『毛詩』·『翻譯名義集』·『本朝文粹』·『新雕皇朝類苑』·『禮記』·『剪燈新話句解』·『周易』·『春秋經傳集解』).

빼뜯어진 문자가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제법 보이는 경우가 있다. 대·소자를 합하여 7~10자 정도인데,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모두 보인다(『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後漢書』).

빼뜯어진 문자가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두드러진 경우도 10여자씩 보인다. 『唐才子傳』에서 11시 방향으로 틀어진 경우는 목록 제4엽하 5-20의 “動”, 권1 제1엽상 6-5의 “存”, 권10 제15엽(말엽)하 4-8의 “河” 등이 있다. 1시 방향으로 틀어진 경우는 권1 제1엽상 7-1의 “崇”, 권10 제15엽(말엽)하 4-9의 “南” 등이 있다.

###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 4.3.1 文字面の 水平

문자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매우 드물게 미약한 정도가 보일 뿐이다. 필획의 일부가 연하게 인출된 문자는 거의 없거나 1~3자 정도 간혹 보인다(『孔子家語』·『毛詩』·『史記』·『本朝文粹』·『剪燈餘話』·『貞觀政要』·『周易』·『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後漢書』). 이 점에서 활자의 육면이 방정하여 배면도 평평하고 높이도 대체로 균일한 활자로 보인다(『毛詩』·『本朝文粹』·『周易』).

문자 필획의 일부가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보이고, 연하게 인출된 경우는

1~2자 정도 간혹(『白氏文集』·『禮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春秋經傳集解』) 또는 자주 보인다(『唐才子傳』). 소자에서는 대자보다 약간 많기도 하고(『剪燈新話句解』), 후반부로 갈수록 더 나타나기도 한다(『新雕皇朝類苑』 본문).

문자 필획의 일부가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1~2자 정도 보이고, 연하게 인출된 것은 2~3자 또는 6~7자 보인다(『殘儀兵的』). 필획의 일부가 인출되지 않은 문자가 소자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데 경중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翻譯名義集』).

#### 4.3.2 印出面의 水平

전반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문자 간 농담의 차이는 비교적 연한 엽에서 구별하기가 용이하다. 농담이 균일하여 목판과 견줄 만한 경우가 있다. 다만 소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거나 후반부에서 다소 진한 문자가 보이기는 한다(『毛詩』·『貞觀政要』·『春秋經傳集解』).

대체로 균일하기는 하지만, 약간 또는 다소의 농담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翻譯名義集』·『本朝文粹』·『後漢書』).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더 나타나기도 하고(『孔子家語』), 필획 간 목즙이 번져서 진하게 찍힌 문자가 보이기도 한다(『白氏文集』). 다소 진한 경우와 반대로 연한 경우가 엽당 3~6자 정도 보이기도 한다(『禮記』·『周易』). 대체로 활자의 높이가 균일하고 육면이 방정한 활자로 보인다(『白氏文集』·『新雕皇朝類苑』·『禮記』).

묵색의 농담 차이가 제법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진한 엽에서는 농담차가 거의 없지만, 연한 엽에서는 제법 보인다(『殘儀兵的』). 묵색의 농담이 고른 엽과 편차가 있는 엽이 혼재하기도 한다. 소자의 경우는 편차가 큰 편이다. 편차가 엽에 따라 큰 점으로 미루어 균자장의 기술 차이가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권73 白起王 翦列傳第13 제14엽상 3-7의 空格에 묵정이 찍힌 모습과 조판 정렬 상태로 미루어 활자는 사면이 방정하기는 하나 다소 엄격하지 않고 균일의 편차도 있는 활자로 보인다. 높이도 다소 차이가 있어서 신구 활자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史記』).

진하거나 연한 문자가 혼재하여 활자본의 특징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唐才子傳』·『剪燈餘話』).

목색의 농담이 대자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연한 문자가 있다. 소자는 거의 목정이 되었거나 거의 안 보일 듯 연한 경우도 있어서 농담의 편차가 크다(『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新話句解』). 연한 문자는 거의 없지만 다소 진한 문자가 엽당 10여자씩 보인다. 음각 문자의 인적으로 미루어 방정하고 높이가 고른 활자다. 인출면의 높이도 대체로 맞춘 편이다(『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계선과 광곽 내선까지 잘 인출되었는데(『新雕皇朝類苑』·『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春秋經傳集解』), 간혹 광곽 외선이 흐리게 인출된 경우가 있다(『周易』).

계선과 광곽 내선이 간혹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孔子家語』·『唐才子傳』·『白氏文集』·『本朝文粹』·『史記』·『殘儀兵的』·『剪燈新話句解』·『貞觀政要』·『後漢書』).

계선과 광곽 내선이 적지 않게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毛詩』·『翻譯名義集』·『禮記』·『剪燈餘話』). 계선이 無界로 보일 만큼 인출되지 않거나 관심의 어미와 후구 일부가 인출되지 않기도 하였다(『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대부분의 판본에서 네 꼭지점이 제법 벌어져 있는 缺口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0~3mm 이내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뒤로 갈수록 3mm 정도로 커지기도 하고(『孔子家語』), 엽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보이는 경우도 있다(『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다소 심한 경우로는 2~5mm(『唐才子傳』·『毛詩』·『白氏文集』·『貞觀政要』), 또는 7~8mm의 경우가 있다(『剪燈餘話』). 예외적으로 1~9mm의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는 경우도 보인다(『禮記』).

관심과 광곽의 인출 상태를 분석하면 2개의 인판을 번갈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殘儀兵的』의 경우, 인판1로 조판한 엽은 序 제1엽·본문 제2·4·6·8·11엽이며, 인판2로 조판한 엽은 목록 제1엽·본문 제1·3·5·7·9·10·12엽이다.

모든 판본에서 조립식 광곽을 사용하고 있고, 식자 방법으로 조임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임 방법은 일부 판본에 잠목 형태로 나타난 흔적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좌우 광곽<sup>16)</sup>을 고정하기 위하여 15~18mm 정도의 광곽 밖에 고정용 버팀목으로 광곽을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孔子家語』). 우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4~17mm 정도의 광곽 우측에(『唐才子傳』·『毛詩』·『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좌변은 10mm 정도의 광곽 좌측에(『周易』) 고정용 버팀목을 사용하였다.

상하 광곽을 고정하기 위하여 17~21mm 정도의 광곽 상하에 고정용 버팀목으로 광곽을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孔子家語』).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0~21mm 정도(『新雕皇朝類苑』·『禮記』), 또는 17~27mm 정도(『白氏文集』·『翻譯名義集』·『本朝文粹』·『史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餘話』·『貞觀政要』·『周易』)의 광곽 위에 고정용 버팀목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7~11mm 정도의 광곽 아래에 고정용 버팀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4~6행 위치에 가로 7~13mm × 세로 3~6mm의 나무못(썰기)을 박아서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禮記』).

『春秋經傳集解』는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36~40mm의 광곽 위에 고정용 버팀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매엽상의 1·3·6행 위치에, 엽하의 5·6~7행 위치에 가로 8~12mm × 세로 5~9mm 이상의 나무못을 박아서 고정하였고,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25~44mm 정도의 고정용 버팀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4~6행 또는 7~8행 위치에 가로 11~15mm × 세로 6~9mm의 나무못을 박고, 하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7~18mm 정도의 광곽 아래에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

16) 인판의 좌우와 판면의 좌우는 정반대이므로 판면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 4.5 기타

### 4.5.1 界線の幅과 界線 격자

계선의 폭은 1.2~1.5mm(『唐才子傳』), 2mm(『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또는 2.5~3.0mm(『新雕皇朝類苑』) 짜리를 사용하였다.

『春秋經傳集解』 권12 제11엽하 4행 대자 17자와 우변 계선 사이에 2mm의 간극을 위한 목적이 보인다. 이는 대자 부분에서 계선의 폭을 맞추기 위하여 충진한 격자로 보인다.

### 4.5.2 本文 字跡의 顛倒와 脫落

발견하지 못하였다.

### 4.5.3 校正의 失手

『孔子家語』 권10 제3엽의 장차가 “四”로 오식되어 있다.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권3 제80엽과 제81엽의 장차가 바뀌어서 권말제가 제80엽하에 있다. 이 밖에 오자를 오려내고 새로 활자로 찍어서 오려 붙인 경우도 있다(『史記』). 교정 문자의 크기와 서체는 본문과 같다. 또한 오자가 1~2자씩, 많으면 4~5자까지 보이기도 한다(『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 4.5.4 例外的 組版

1자를 심을 수 있는 공간에 2자를 심은 경우가 있다. 『春秋經傳集解』 권20 제24엽하 5-15좌의 “之子”와 6-7좌의 “不臣”이 그것이다.

## 4.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0종이며, 나머지 8종(「唐才子傳」·「翻譯名義集」·「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殘儀兵的」·「剪燈新話句解」·「剪燈餘話」·「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後漢書」)은 중급에 해당한다. 일부 판본은 고명한 수준이지만, 후반부에서 편차가 나타나거나 정신적 해이가 보인다(「孔子家語」·「史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 5.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印出技術

### 5.1 墨色의 濃淡

#### 5.1.1 全體의 墨色

전반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더 진하거나 연한 엽의 유무에 따라서 농담 차이가 구별되었다. 대부분이 드물게 또는 간혹 연한 엽이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이다.

묵색이 아주 진한 엽과 연한 엽이 적지 않게 혼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翻譯名義集」·「史記」·「周易」·「春秋經傳集解」).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진한 엽이 나타나기도 하고(「新雕皇朝類苑」·「後漢書」), 전반부에 진하고 후반부에는 연한데, 보편적 농도보다 더 진한 엽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禮記」).

#### 5.1.2 葉 간의 濃淡差

간혹 연한 엽이 섞여 있어서 농담 차이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담 차이가 크지 않아서 안정된 수준의 경우가 있고(『孔子家語』·『唐才子傳』·『毛詩』·『貞觀政要』·『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剪燈餘話』), 농담 차이가 약간 보이는 경우도 있다(『春秋經傳集解』·『後漢書』).

부분적으로 번진 엽이 있거나(『白氏文集』·『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진한 엽과 연한 엽이 적지 않게 혼재하고 있어서(『翻譯名義集』·『史記』·『殘儀兵的』·『新雕皇朝類苑』·『禮記』·『剪燈新話句解』·『周易』) 다소의 농담 차이가 보인다.

엽 간의 농담 차이는 아주 작은데 후반부로 갈수록 쓸림 현상이 커지면서 농담 차이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 5.2.1 墨汁의 번짐

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한 결과,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묵색이 진하면서도 판면의 번짐은 없다. 다만 필획 간의 묵즙이 과하여 약간 번진 문자가 1~2자 보이는 경우가 있다(『毛詩』·『禮記』·『貞觀政要』·『周易』·『後漢書』). 다소 진한 엽에서는 측면 반영이 나타나기도 하고(『殘儀兵的』·『周易』), 다소 심하게 측면이 반영되어 부분 번짐처럼 보이는 엽이 있다(『禮記』). 착묵이 약간 과한 상태에서 힘껏 밀어서 묵즙이 빗살처럼 밀린 엽이 간혹 보인다(『貞觀政要』). 번진 문자는 거의 없지만, 예외적으로 권1 제100엽상 3-8의 “者”가 보인다(『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부분적으로 미세한 번짐이 보이나, 정도와 수량이 경미한 경우가 있다(『新雕皇朝類苑』·『剪燈餘話』). 번짐의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번진 엽이 간혹 드물게 보이고 번진 문자는 간혹 자주 보인다(『唐才子傳』·『白氏文集』·『本朝文粹』·『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착묵의 양이 과다하여 번진 엽이 자주 보이고 번진 문자도 적지 않다. 필획 간에 번진 경우도 적지 않고, 거의 墨丁이 된 문자도 있어서 편차가 크다(『翻譯名

義集」·「剪燈新話句解」·「史記」·「春秋經傳集解」). 관리의 부주의로 접힌 엽에서 먹이 투영된 현상을 볼 수 있다(「史記」).

### 5.2.2 墨汁의 쓸림

쓸림 현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殘儀兵의」), 대부분이 묵색이 진하여 번진 문자나 측면 반영 문자에서 나타나는데, 그 정도는 심하지 않은 편이다.

비교적 적지 않게 보이는 경우는 「史記」와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정도이다. 「史記」는 墨丁처럼 된 문자도 드물게 보인다. 예: 권4 제12엽상 1-4의 소자 “事”와 제12엽하 4-5·8의 소자 “疆·疆” 등.

### 5.2.3 字跡의 깨짐

착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목활자에 묵색을 진하게 쓴 결과 자적이 깨진 경우는 없다.

## 5.3 雜痕과 雜墨

대부분의 판본이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였으면서도, 대체로 광곽 주위에 나타나는 잡흔과 잡묵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수량도 적어서 깨끗한 편이다.

정도가 다소 많아서 대소량이 꾸준히 보이는 경우는 「毛詩」·「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周易」 등을 들 수 있다.

## 5.4 二重 印出

묵즙을 인판에 도포한 후 책지를 인판 위에 얹을 때, 부주의하여 이중으로 인출된 곳이 없기도 하지만(「禮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餘話」·

「周易」·「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일부 판본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는 1~3자(「毛詩」·「殘儀兵的」의 본문 제1엽 8-4의 소자 “不”), 또는 아주 드물게 1~2엽 정도(「白氏文集」·「翻譯名義集」·「史記」의 권118 淮南衡山列傳第58 제15엽·「剪燈新話句解」·「貞觀政要」)에 불과하다.

##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 5.5.1 印出의 方向

책지의 후면을 살펴야 관찰이 가능한데, 분석을 할 수 있는 판본이 많지 않았다. 분석된 판본 3종(「孔子家語」·「史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은 모두 상하 방향으로 인출하였다.

### 5.5.2 印出의 強度

인출면을 직관법으로 관찰하면, 강하게 인출하여 책지에 문자의 윤곽이 요철로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쉽게 자주 보이기도 하고(「唐才子傳」·「禮記」), 드물기도 한다(「毛詩」·「翻譯名義集」·「新雕皇朝類苑」·「剪燈新話句解」·「剪燈餘話」·「春秋經傳集解」·「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 5.6 着墨의 均整度

착묵 상태가 매우 안정된 경우도 있고(「孔子家語」), 대체로 안정된 경우도 있다. 이 중에는 묵색이 진한 엽에서 쓸림과 측면 반영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毛詩」·「周易」·「後漢書」). 묵판과 비길만한 경우도 있다(「新雕皇朝類苑」).

묵색이 진한 엽과 연한 엽이 혼재하고 있으면서 번짐과 쓸림의 현상이 보이기도 한다(「唐才子傳」·「翻譯名義集」·「本朝文粹」·「史記」·「禮記」·「五百家

註音辨昌黎文集」·「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착목 상태가 한 엽에서도 진하고 연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문자에서도 필획에 따라 진하고 연한 농담 차이가 크게 나타날 만큼 매우 균일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금속에 물먹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다(「剪燈新話句解」). 또한 부분적으로 한 번 착목하여 두 번 인출한 것처럼 아주 연한 곳도 간혹 보인다. 진하고 연한 엽이 뒤섞여 있다(「春秋經傳集解」).

## 5.7 綜合 評價

전반적으로 목즙을 사용하는 인출술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판본은 인출술이 우수하면서도 드물게 부주의한 엽이 보이기도 한다(「孔子家語」 권1 제11엽하·13엽하·권3 제7엽하). 반면에 착목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농담이 뒤섞인 경우도 있고(「唐才子傳」), 인출 기술이 고명하지 못하여 조각술과 조판술을 상쇄하는 수준의 경우도 있다(「白氏文集」·「史記」·「春秋經傳集解」).

인출 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7종(「孔子家語」·「毛詩」·「本朝文粹」·「新雕皇朝類苑」·「殘儀兵的」·「周易」·「後漢書」),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 6.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印刷技術

인쇄의 주체가 각각 다른 결과 다양한 현상이 혼재하고 있다. 인쇄기술의 3요소가 두루 우수한 경우가 있다(「孔子家語」·「毛詩」·「本朝文粹」·「新雕皇朝類苑」·「周易」).

조각술과 조판술은 우수하지만, 인출술이 다소 아쉬운 경우가 있고(「白氏文集」·「史記」·「貞觀政要」·「春秋經傳集解」), 조각술과 인출술은 우수하지만, 조판술이 아쉬운 경우가 있다(「後漢書」).

조각술만 우수한 경우도 있고(『剪燈新話句解』), 조판술은 다소 우수하지만, 조각술과 인출술이 다소 떨어지기도 하고(『禮記』), 인출술은 우수하나, 조각술과 함께 많이 사용하여 전체적인 서품은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殘儀兵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臺灣 소장 일본의 고활자의 인쇄 기술 수준은 중상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 7. 結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臺灣의 일본 고활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수량은 2처 19종이다. 그중 3종은 일본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은 孤本이다. 이들 고본의 판식 상 특징은 四周雙邊, 有界, 7~10행16~22字, 小註雙行, 黑口, 黑雙魚尾 2종과 3葉花紋雙魚尾 1종, 一切式 版心 등을 사용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銅活字本인 『群書治要』를 제외하면, 모두 목활자이다. 이들의 製作技術은 모두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다. 문자의 미감은 세련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혼재하고 있으나, 우수한 경우가 많다. 오래 사용하여 보각한 경우도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가지런하다. 빼뺏어진 문자와 농담의 차이는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목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의 차이가 다소 보이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약간 보일 만큼 다양하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중상급에 해당한다.

## <참고문헌>

### 1. 목록·해제·도록류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漢籍目錄』.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9.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和漢圖書目錄: 昭和14年(1939)2月-昭和25年(1950)3月』.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3.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編.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閱覽카드目錄』. 東京: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

宮內廳書陵部編. 『和漢圖書分類目錄(上·下·增加)』. 東京: 宮內廳書陵部, 1952·1953·1968.

內閣文庫編. 『改訂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內閣文庫編.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錄(上·下)』.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編.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漢籍分類目錄』.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73.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編纂委員會編.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  
東京: 東京大學總合圖書館, 1995.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 東京: 東洋文庫, 2000.  
東洋文庫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經·史·子』. 東京: 東洋文庫, 1978·1986·1993.

東洋文庫編. 『東洋文庫漢籍叢書分類目錄』. 東京: 東洋文庫, 1945.

東洋文庫編. 『東洋文庫漢籍叢書分類目錄(增補之部)』. 東京: 東洋文庫.

東洋文庫編. 『岩崎文庫和漢書目錄』. 東京: 東洋文庫, 1934.

東洋文庫編. 『漢籍分類目錄: 集部(東洋文庫之部)』. 東京: 東洋文庫, 1967.

東洋學文獻センター-連絡協議會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東京: 東洋文庫, 1967.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錄』. 東京: 國立國會

圖書館, 1987.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新編帝國圖書館和古書目錄』.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尊經閣文庫編. 『尊經閣文庫國書分類目錄』. 東京: 石黒文吉, 1939.

尊經閣文庫編. 『尊經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石黒文吉, 1934.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普通舊籍目錄』.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民59(1970).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善本古籍資料庫』.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善本舊籍總目』.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民72(1983).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民57(1968).

(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特藏組編輯. 『國立中央圖書館善本書目(增訂二版)』. 臺北: 國立中央圖書館, 民75(1986).

(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編. 『國立中央圖書館善本書目(增訂本)』. 臺北: 國立中央圖書館, 民56(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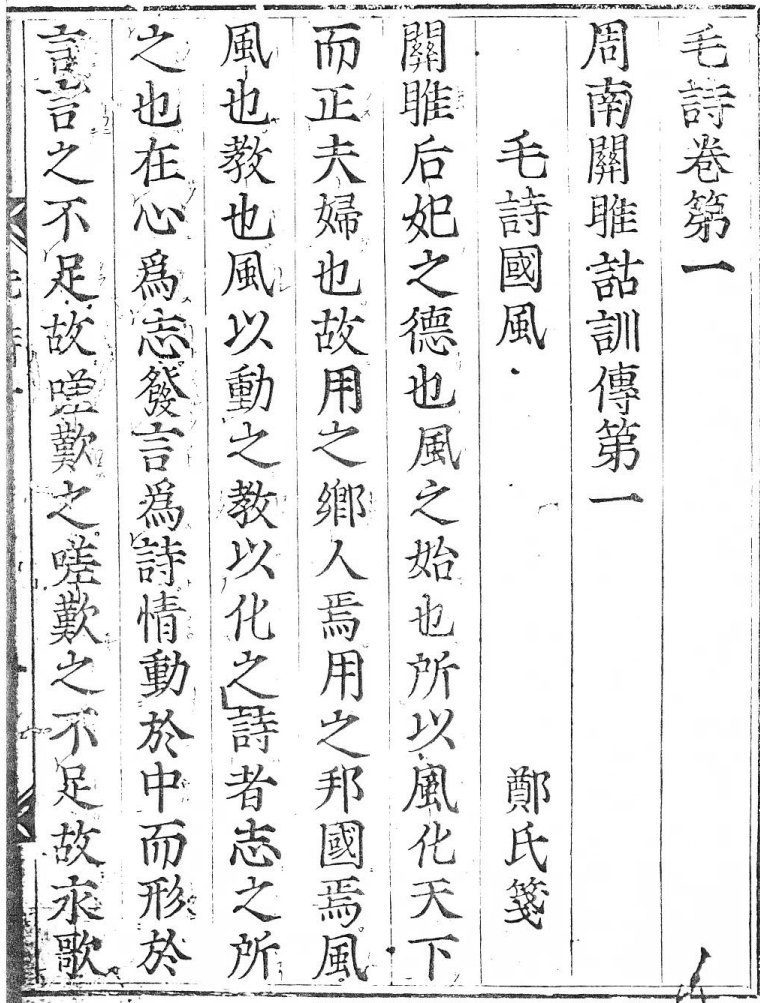
和歌山大學圖書館編. 『和歌山大學圖書館閱覽카드目錄』. 和歌山: 和歌山大學圖書館.

## 2. 저술·논문류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川瀨一馬. 『增補古活字版の研究』. 東京: 共立社, 1967.

[부록] 書影\*



<書影 1> 「毛詩」. [慶長年間]木活字第2種1種印本(21.83 × 16.41)(國圖, 233)

\* 서영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中華民國 國家圖書館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白氏文集卷第一

諷諭一 古調詩五言 凡六十五首

賀雨詩

皇帝嗣寶曆元和三年冬自冬及春暮不  
雨旱熾熾上心念下民懼歲成災凶遂下  
罪已詔殷勤告萬邦帝曰予一人繼天承  
祖宗憂勤不遑寧夙夜心忡忡元年誅劉  
闢一舉靖巴邛二年戮李錡不戰安江東  
顧惟眇眇德遽有巍巍功或者天降沴無

<書影 2> 「白氏文集」.

元和4(1618)年那波道元木活字印本(22.9 × 16.3)(國圖, 9847)

翻譯名義集卷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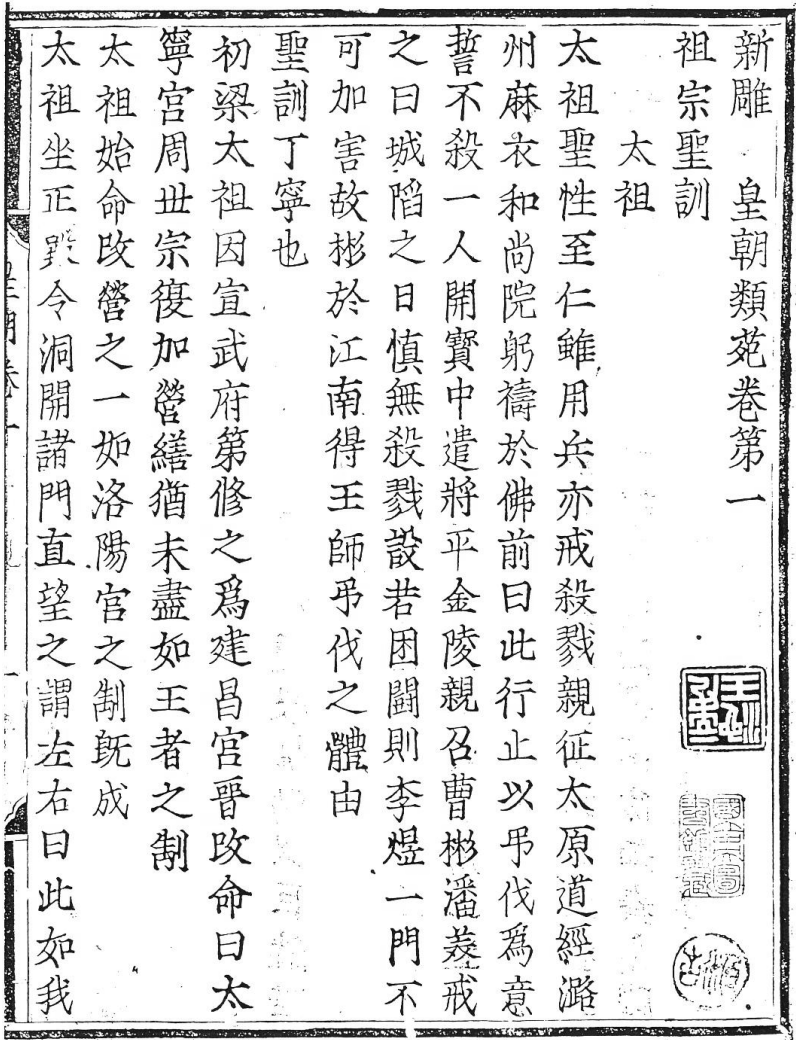
姑蘇景德寺普潤大師 法雲 編

夫翻譯者謂翻梵天之語轉成漢地之言音雖  
 似別義則大同宋僧傳云如翻錦繡背面俱華  
 但左右不同耳譯之言易也謂以所有易其所  
 無故以此方之經而顯彼土之法周禮掌四方  
 之語各有其官東方曰寄南方曰象西方曰狄  
 觀北方曰譯今通西言而云譯者蓋漢世多事  
 北方而譯官兼善西語故摩騰始至而譯四十  
 二章因稱譯也言名義者能詮曰名所以為義  
 能詮之名胡梵音別自漢至隋皆指西域以為  
 胡國唐有彥琮法師獨分胡梵葱嶺已西並屬  
 梵種鐵門之左皆曰胡鄉言梵音者初初廓然  
 梵音天神降為人祖宣流梵音故西域記云詳

翻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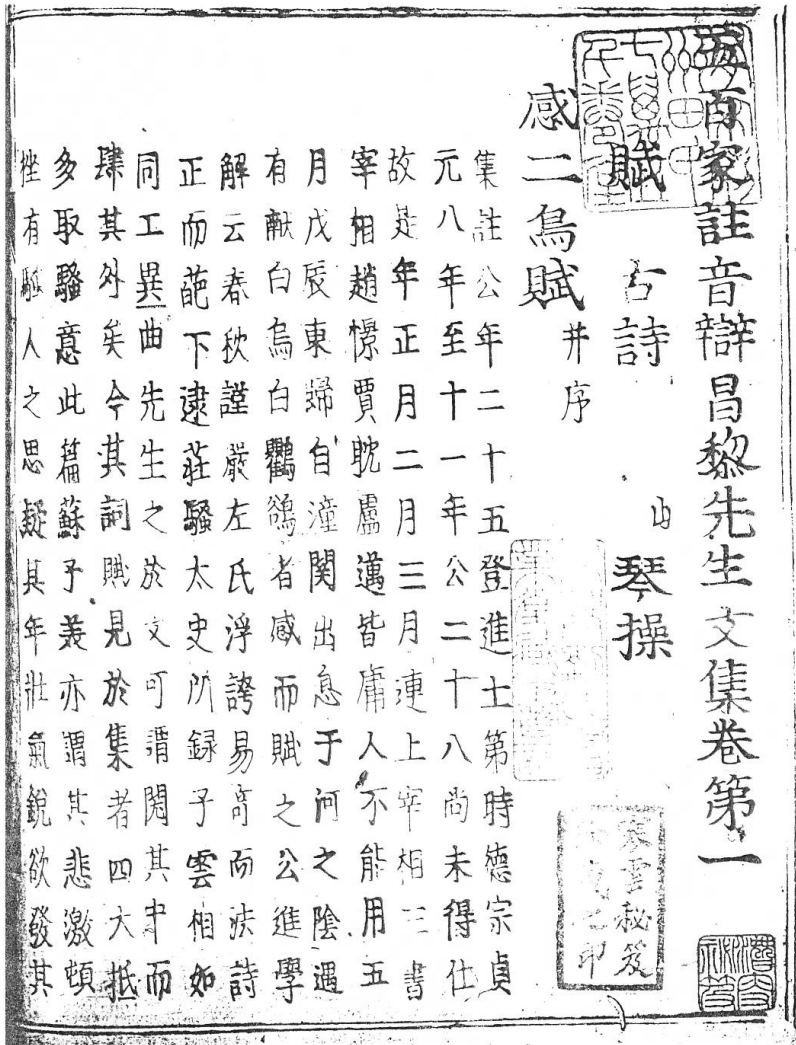
<書影 3> 「翻譯名義集」.

[慶長元和年間]木活字印本(22.4 × 15.52)(國圖, 8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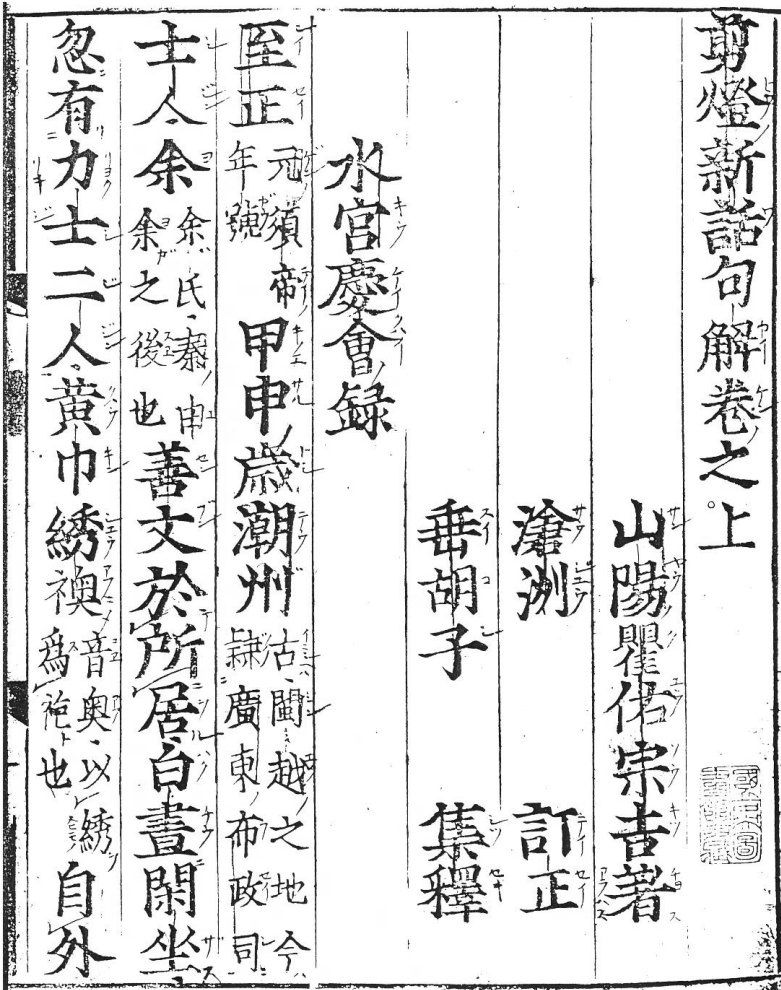
<書影 4> 「新雕皇朝類苑」.

元和7(1621)年後水尾天皇勅版木活字印本(22.2 × 16.6)(國圖, 7559)



<書影 5> 「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元和寬永年間]木活字印本(22.05 × 17.45)(國圖, 9710)



<書影 6> 「剪燈新話句解」.

[慶長元和年間]木活字印本(22.6 × 17.3)(國圖, 8537)

剪燈餘話卷之一

廣西左布政使廬陵李昌祺編撰  
翰林院庶吉士文江劉子欽訂定  
上杭縣知縣盱江張光啓校刊  
建陽縣縣丞何景春同校綉行

長安夜行錄

洪武初湯公銘之與文公原吉俱以老成練達學問  
淵源政事文章推重當代未幾而秦郢之國湯公拜  
右輔文公拜左輔隨從以行時天下大平人物繁庶  
關中又漢唐故都遺跡俱在二公尊翊之暇惟從容  
於詩酒中臨眺於山川訪古尋幽未嘗相舍一日文  
公謂湯公曰漢代諸陵盡在於此吾徒幸無案牘之  
勞且有休退之日登高能賦此其時乎府僚洛陽巫

<書影 7> 「剪燈餘話」.

元和寬永年間木活字印本(22.5 × 16.7)(國圖, 8538)

春秋經傳集解隱公第一

杜氏

盡十一



傳竟惠公元妃孟子言元妃明始適孟子卒不稱

薨不成喪也無謚先夫死不得從夫謚繼室以聲子生隱公謚

也蓋孟子之姪婦也諸侯始娶則同姓之國以姪婦勝元妃死則皆妃攝治內事猶不得稱夫人故宋武公生仲子仲子生而有文在

謂之繼室宋武公生仲子仲子生而有文在

其手曰為魯夫人故仲子歸于我婦人謂嫁曰歸以手

理自然成字有若天命故嫁之於魯生桓公而惠公言歸魯而生男

位謚隱

<書影 8> 「春秋經傳集解」.

[慶長年間]木活字印本(20.2 × 16.0)(國圖, 593)